조셉 콘라드의 『비밀동숙자』 소고

박 정 길

A Study on The Secret Sharer

Jeong-Gil Park

Abstract

The Secret Sharer is known as one of the best Conrad's short stories of the sea. It is based on personal reminiscences of his first command on the vessel of Otago, which had been built in Glasgow in 1869. It is a story of questioning and uncertainty about the grounds of being and action. He creates two main protagonists; the captain-narrator of this story, who is a young and inexperienced, sincere yet uninspiring commander, and an impulsive man who acts according to his sense of justice. He is the ex-chief mate of the Vessel, Sephora, and his name is Leggatt. Both the captain and Leggatt in certain ways reflect Conrad's own character. And both in some way reflections of each other; Leggatt is 'both a real flesh-and-blood seaman as well as some kind of alter ego' for the captain and Conrad handles delicately this double function. The captain begins behaving in ways that surprise both himself and his crew after his meeting Leggatt. The Captain feels an unexplainable affinity to Leggatt, referring to him as "my double" or "second self". He agrees to hide him in his stateroom, and he begins commanding his men in a direct way. While Leggatt did kill a man aboard the Sephora, and he informs to the Captain that he swam to an islet and then to the Captain's ship. He decides to escape his confinement on his ship and to risk his life searching for a 'new destiny.' Leggatt tells the Captain that he must maroon him amongst some island. The Captain reluctantly agrees. In conclusion, Each man offers something to his double; the captain offers Leggatt a place to hide and his eventual means of escape, while Leggatt forces the Captain, through his assistance in helping him at Koh-ring, a chance to provide his seamanship in the eyes of the crew. Thus the final scene of the story reflects the degree to which the Captain has changed due to his relationship with Leggatt.

Key words : second self, my double, new destiny, bildungsroman, Doppelganger Theme, symbolic level

I

"내가 이루고자 하는 바는 쓰여 진 말로 여러분들로 하여금 듣게 하고 느끼게 하고 무엇보다도 보게 하는 일이다.' 그것밖에는 없다. 내가 만일 성공한다면 여러분은 거기에서 여러분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발견하게 되리라, - 격려와 위안과 공포와 매력을. 그리고 아마 여러분이 잊어버리고 요구하지 않은 진리도 언뜻 보게 되리라." 조셉 콘라드(Joseph Conrad : 1857-1924)가 소설 나아시서스 호의 깜둥이의 서문 ①에서 밝히고 있는 자신의 소설 예술관이다.

소설에 관한 이러한 언명은 그의 모든 소설에서 자신의 체험을 통하여, 혹은 타자와의 관계에서 자신과 타자와의 내면을 발견해 가는데서 수반되는 매우 험난한 고통의 과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는 여러 편의 소설을 썼으며 그 대부분은 바다를 소재(素材)로 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소재들을 이용하여 그가 소설 속에 구사했던 이국적이며 향토색이 짙은 화려한 산문은 비평가들에 의해 해양소설 작가라는 칭호를 얻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짐짓 본인은 그런 평가를 싫어했다. Elizabeth Drew는 그녀의 로드 짐(Lord Jim)론(論)에서 "그의 소설의 1/10만 바다에 관한 것이고 그것이 바다에 관한 것일 때에도, 그의 소재(素材)는 우연히 배를 타게 된 인간의 심리적 문제들임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다"라고 썼다.

콘라드의 작가적 이상을 대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녀의 이런 설명은 어쨌든 옳다. 사실 콘라드 본인이 시드니 콜빈(Sidney Colvin)에게 보낸 편지 ②에서도 작가로서의 자신의 입장에 대한 몰이해를 안타까워하는 면이 드러나 있음을 본다:

"그 동안 나는 해양작가라거나 열대지방작가, 묘사에 능한 작가, 로맨틱한 작가, 리얼리스트라거나 하는 따위의 호칭을 들어왔지. 그러나 사실인즉 나의 모든 관심은 사물, 사건, 인물들의 "이상적"가치에 있었네. 오직 그것뿐이었지... 사실이지 내 창작 활동에 고의로 부과된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인간적 사실과 행동의 이상적 가치라 하겠네." (LL.2, p.185)라고 했던 것이다.

그런데 자신을 일러 해양작가라고 호칭한 점에 대하여 본인이 자신을 더 잘 이해해 주는 독자가 부족했다는 이유 등으로, 그의 호칭에 다소의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손 치더라도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그의 명성이었지 그를 폄하해서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니었지 않는가.

과연 그이 만치 광활한 바다를 소설의 배경으로 삼아, 그것도 그렇게 빈번히 배를 무대로 인간에 대한 통찰을, 이를테면 "어떤 추방 자 , 나라 없는 사람, 버림받은 자, 외로운 선장, 고독한 투쟁에 사로잡힌 자, 돌이 킬 수 없는 과거의 허물 때문에 함정에 빠진 자, 영혼이 살아남으려면 반드시 극복해야하는 이들"에 대한 그의 인간관을 그렇게도 극적으로, 그이만큼 다양하고 집요하게 표현해 낸 작가가 또 있었던가.

그의 아버지는 지금의 우크라이나 지방의 폴란드인으로 지주였으며 시인이자 작가이기

dCollection

도 하였다. 그런 그가 폴란드의 독립을 위해 일했다는 이유로 당시 폴란드를 지배하고 있었던 러시아 당국에 의해 1862년, 북부 러시아의 볼로그다(Vologda)로 유배를 당하게 된다. 이때 나이가 겨우 5세였던 콘라드는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따라 유형지로 동행했으나, 어머니 Eva는 1865년에 폐렴으로 유배지에서, 1869년에는 아버지 Apollo 도 어머니와 동일한 병으로 크라코브(Cracow)에서 생을 마감한다. 11세의 나이로 고아가 된 그는 일 후 거의 평생을 두고 외삼촌, 보브로브스키(Bobrowski)로부터 생활에 필요한 재정적 도움을 입게 된다.

그의 소망은 러시아의 지배 하에 있었던 조국 폴란드를 떠나 영국으로 가는 것이었다. 그의 나이 15세가 되었을 때 바다로 나가기로 결심한 그는 외국에 대한 관심을 가일층 키워나갔다. 그의 이러한 관심은 러시아의 병사가 되는 일을 피하겠다는 각오도 있었지만 일찍이 결심해 두었던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이 더더욱 작용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래서 그는 선원이 되고자 했다. 그의 이런 결심은 당시에 널리 읽혔던 프레데릭 매리어트 선장(Captain Frederick Marryat)의 모험담이 항해를 통해 먼 나라에 대한 막연한 동경심을 현실로 체험해 보고자 하는 소년의 마음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그런데 평소 선원이 되고자 결심했던 그는 가족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1874년, 돌연 말세이유(Marseilles)에 나타난다. 그리고 1875년 6월에 서인도 제도를 왕래하는 견습선원으로서의 이력을 시작하고 있다. 서인도 제도로의 첫 항해 이후, 동년 12월에 다시 말세이유로 돌아왔지만 그에게 주어진 개인적인 애로는 병역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타고 있는 프랑스선적의 선원일자리도 잃게 된다는 절박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제 남은 일은 더 이상은 러시아 국적이 아니라, 소원하던 영국국적을 갖는 것이었다.

1878년, 마침내 그는 매이비스(Mavis)호를 타고 영국의 로웨스토프트(Lowestoft)항에 들어온다. 당시 영어를 한 두 마디밖에 구사 할 수 없었던 보통선원이었던 그는 1880년에 이등항해사(Second Mate)가 되고, 1884년에는 일등항해사(First Mate)의 자격을 얻는다. 1886년 8월에 드디어 영국국적을 얻게 되었으며, 그해 11월에 대망의 선장자격(Master Mariner's Certificate)을 획득하고 있다. Joseph Conrad라는 이름은 이때 새롭게 얻은 것이었다. 실제로 그는 17년간 영국의 상선에 승무 했던 상선사관이라는 이력의 소유자이다.

콘라드에게는 해양소설가라는 호칭 못지않게 체험의 작가라거나 그 작풍이 자서전적이라 하여 자전적 소설가라는 평가가 따르고 있다. 그것은 상선 사관으로서 자신이 경험한 세계, 즉 바다에서 몸소 체험한 사건이나 바다에서 벌어지는 갖가지 상황을 상정해 두고 이를 소설형식을 빌어 그 사건에 대해 자신의 상상적 인식을 결합해서 독자들에게 보여준 결과라 할 것이다. 우리는 그가 이러한 그의 내적 인식을 "나" 아니면 "익명"의 이름으로, 또는 "화자 겸 선장"이라는 직함으로, 그리고 더더욱 유명하게는 마알로(Marlow)라는 작가 자신의 대변인격인 화자를 앞세워, 인간사의 절대적 규범에 대한 타당성을 두고 끊임없이

dCollection

회의하고 갈등하면서 자신만의 도덕관을 바탕으로 "삶의 통찰과 인간조건에 대한 엄숙하고, 고독하며, 아이러니에 찬 그의 인식"을 동원할 수 있는 각가지 기교를 써서, 말하자면 때로는 이미지로 때로는 상징으로 혹은 연상이나 여담으로 인간관계의 근본적인 문제들에 관한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준다.

이러한 것들이 그가 우리에게 "인간관계의 해석에서 인생을 보는 새로운 방법을 요청"하고 있는 신호 같은 것이라 한다면, 우리는 필자가 순차적으로 논 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다음의 소설들, 어둠의 속(Heart of Darkness), 청춘(Youth), 그리고 그림자 - 선(The Shadow-Line)에서도 작가가 시도하고 독자에게 전하려 하고 있는 메시지의 의미 - 즉 인간 조건에 관한 내면적 세계를 보여주는 심원한 자아의 탐색이며, 긴 긴 항해와 해상사고에서 보여주는 '리얼' 한 표현과 이제는 사라지고만 것들을 인생에서 찾아가는 인생의 이야기, 그리고 청년기와 성년기를 가르는 경계선상에서 신임선장과 정열에 불타는 젊은 선원들이 자기발견을 위한 성숙에 이르기까지의 불가피한 시련의 과정이 중심적인 주제--를 접할 수 있을 것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주제의 핵심을 열어가고 있는 플롯의 구성요소들이 하나같이 긴 항해와 배, 바다와 날씨, 이국적 풍물과 지리상의 발견, 선박의 구조나 신호체계, 간단한 조타명령이나, 상선사관이며 보통 선원으로서의 각자가 맡은바 책임과 임무가 무엇인가를, 그리고 그들이 맡은바 책무에서 최선을 다하지 못하거나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 빚어진, 또는 빚어질 수 있는 결과에 대한 우려스러움이 끊임없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본 장(章)에서 논하고자 하는 비밀 동숙자(The Secret Sharer)에서도 소설 예술은 "인간 영혼의 고립감과 아울러 동류와의 유대감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 (나아시스호의 깜둥이:서문) - 는 작가의 견해를 "나"겸 "선장"인 화자와 또 하나의 상대역인 리개트(Leggatt)와의 관계를 통하여 잘 드러나고 있다. 소설은 운명적 순간에 우연을 계기로 두 사람이 만나게 되고 이런 상황이 서로에게 시련을 안겨 주고 있다. 생각지도 못했던 시련의 늪에서 빠져 나오려 애쓰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에서 진정한 자아의 참 모습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런 그가 또 다른 하나의 시련에 강제로 직면할 수 밖에 없는 고립과 위기의 상황을 맞아, 내면의 표출을 강요받는 가혹한 상황이 둘 사이에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혼의 고립감과 동류와의 유대감은 어떻게 대 단원을 완수 할 수 있을까? 과연 "애매하고 분명히 파악 할 수 없는 것이 심원하고 무한한 의미를 지닌다." (F.R. Leavis)라는 언명은 이 경우에도 적합한 것인가? 비밀동숙자는 분량이 적어 읽기에도 부담이 덜 하려니와 그 무엇보다도 소설의 플롯 전반이 시종일관 해사관계의 상황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해양 소설 중에서도 그 대표적의 전형이랄 수 있겠다.

dCollection

II

비밀동숙자가 만나는 곳의 무대는 외계와 단절된 또 하나의 다른 세계, 즉 바다이다. 이 특별한 세계에 떠 있는 범선에서 일방이 전혀 새로운 류(類)의 타자와 운명적으로 부딪치게 됨으로써 정신적으로 시련을 겪게 되고, 이를 통해 자각과 성장이라는 내면적 가치를 추구해 가고 있다.

그런데 콘라드가 선장의 직책을 얻어 최초로 승선하기로 되어 있는 배의 선명(船名)은 Otago호로 그 배는 당시 선장의 유고로 인하여 방콕 항에 정박하고 있었다. 이 배는 1869년 글라스고우(Glasgow)에서 건조된 367톤 급의 범선(a sailing ship)으로 방콕 현지에 도착 일로부터 월 임금이 14파운드라는 계약조건이었다.③

그는 이 배에 대해 "my first command...sure of a tenderly remembered existence as long as I live"라 하여 한없는 애정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그리고 소설 The Secret Sharer에서 는 이 배(Otago호)는 그에게 있어서 순전한 체험의 세계가 아니라, 상상의 소우주가 된다.

콘라드는 생애 최초로 선장이 되어 시암(Siam)만의 내항에 정박해 있는 이 배를 찾아 나선다. 이 과정에서 그는 사구의 밖, 그가 지금 승선하고 있는 배에서 이때 그가 바라 본 메이남(Meinam) 강과 방콕시의 전경을 그의 기억을 더듬어가며 묘사했는데 이것이 이 소설의 도입부가 된 것이다.

소설은 '나'라는 일인칭의 선장 겸 화자와 선명(船名)이 확인되지 않은 배가 시암 만에 닻을 내리고 있다. 익명의 선장이 갑판에 홀로 남게 되었을 때 자신이 과연 이 배와 선원을 효율적으로 지휘 감독할 수 있을까라는 스스로의 물음에 회의를 느낀다. 그는 이 배와 선원들에 대해서도 스스로 한사람의 '낯선 타자'임을 느끼고 있다. 저녁 식사 때 선장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제도의 안쪽에 닻을 내리고 있는 배의 마스트를 보았다는 말을 한다. 이에 이등항해사가 이르기를 그 배의 선적이 리버풀(Liverpool)이며 석탄 운반선으로 선명이 세포라(Sephora)호 라고 답한다.

선장은 지난 이틀 동안 열심히 일을 한 선원들에 대해 그 노고를 치하한다는 호의적인 제스쳐로 새벽 1시까지 자신이 정박 당직(anchor watch)을 서겠노라 선언한다. 이는 지극히 비 관례적인 조치로 선장에게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아니었다.

선원은 모두 잠들고 당직 중에 선장은 배의 측면에 늘어 뜨려 놓은 밧줄로 된 사다리를 잡아 당기게 된다. 이는 예인선 선원을 위해서나 선원들의 우편물을 운반하기 위해 내려둔 것이었다. 그가 이 로프를 당겼을 때 뜻밖에도 그는 이 로프가 되 당겨 옴을 느낀다. 놀란 나머지 그는 어쩐 일인지 알아보려고 갑판에서 바다 쪽으로 몸을 내민다. 그는 물에서 나신의 한 남자가 로프로 된 사다리의 밑바닥 줄을 잡고 있는 것을 목격한다.

그는 자신을 리개트(Leggatt)라고 소개한다. 그는 자신이 세포라 호의 일등 항해사이

dCollection

며 7 주전에 버릇없는 선원 한 놈을 우연히 죽였다고 말한다. 이런 리개트에게 선장은 자신의 것과 같은 잠옷 한 벌을 그에게 가져다준다.

그런데 선장은 그를 선장실(state-room)로 데리고 갔다. 그는 도망 오기 전까지 그의 선실에서 감금 당해왔으며 선장께서 보신대로 로프로 된 사닥다리가 있는 이 배로 헤엄쳐 왔다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옷을 바다에 던져버렸는데 이는 세포라 호의 선원들이 그가 바다에 빠져 자살한 것으로 보이게 하기 위함이라는 말도 한다.

이런 말을 들은 선장은 리개트에게서 형언할 수 없는 친근감을 느끼고는 "my double" 이라거나 "second self"라는 말로 자신의 이신동체(二身同體)를 만났다는 기쁨에 그를 환대해 마지않는다. 선장은 자신이 이 배의 책임을 떠맡은 게 겨우2주일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그에게 이르기를 당신이 이 배에 대해 생소하듯이 자신도 생소함을 느끼고 있노라 는 말로 이 도망자와 이상 하리 만치 신비스런 영적교감(a mysterious communication)을 이루고 있다. 선장은 리개트를 선장실에 숨겨주기로 한다.

세포라 호의 선장이 도주한 살인자를 찾으러 와서는 배를 수색해 보지만 선장의 교묘한 대응에 리개트는 무사히 이 배에 숨어 지내게 된다. 수색에 나섰던 세포라 호의 선장은 본국에 귀항하는 대로 그를 자살자로 보고서를 올리겠다는 말을 남기고 배를 떠난다. 그리고 선장과 리개트는 체포되지 않은 것에 대해 다함께 안도한다.

배가 본국으로의 귀항하는 항해에 들어서게 되자 선장은 이 배의 선원들이 리개트를 발견할는지 모른다는 생각에 안달이다. 나흘째 되던 날 급사(steward)가 선장의 옷을 선장실로 가지고 올 때 하마터면 리개트와 마주칠 뻔 한다. 불안한 리개트는 선장에게 자신을 지나다 어느 섬에 내려놓아 달라는 부탁을 한다. 그 이유로 자신은 잉글랜드로 돌아갈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으며, 감옥에 가거나 교수형에 처해 지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선장은 마지못해 그의 청에 응한다. 배가 코링(Koh-ring)섬에 접근하자 선장은 배를 해안 가 까이로 운항토록 명한다. 선원들은 안전항해와는 거리가 먼 부당한 선장의 명에 항의한다. 그러나 선장의 의도는 달랐다. 그는 리개트가 수영하여 안전하게 해안에 다다를 수 있는 기회를 줄 결심이었다.

선장은 그가 거처하는 선실에서 가만히 나와 리개트와 악수를 나눈 후 겁먹은 선원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배를 해안 가까이 바짝 붙여서 운항토록 지시를 내린다. 갑판에서 뛰어내린 리개트가 안전하게 헤엄쳐 섬으로 향하고 선장은 위험한 항로에서 벗어나 안전한 항해에 들어선다. 선장은 이제 물에 뛰어든 리개트가 새로운 천국(new destiny)을 발견하는 행운을 얻게 되기를 소원한다.

위에서 본 대체적인 내용의 비밀동숙자(Secret Sharer)는 1912년 Twixt Land and Sea에 'A smile of Fortune'과 'Freya of the Seven Isles'의 합본으로 출판되었다. 가아네트(Garnett)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그가 이 작품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해하고

dCollection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다.

> I dare say Freya is pretty rotten. On the other hand the Secret Sharer, between you and me, is it. Eh? Every word fits and there's not a single uncertain note. Luck my boy. Pure luck. p. 243 ⑤

그런데 이 스토리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그의 예술적 목적에 따라 변형시킨 것으로 그가 직접 체험한 사실을 자전적 요소를 가미하여 펴낸 작품과는 다소 거리라 있다.

실화는 1880년대에 Cutty Sark호에 승선하고 있었던 전제적 성격의 어느 항해사가 동승하고 있었던 흑인 선원이 무능하다는 이유로 캡스턴 바(Capsten bar)로 내리쳐서 죽이는 사건이 있었다. 이 소설에서도 한 선원이 명령에 선선히 복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고 있다. 세포라 호 에서 살인의 죄과에 대한 벌을 피해 도망쳐 나와, 스토리의 '화자 겸 선장' 과 친구가 된 리개트 처럼 실제의 살인자도 벌을 피해 헤엄쳐 새로운 운명을 맞았다는 내용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선장이 이 배에 부임한 것은 불과 2주전이다. 이런 이유로 자신이 검증되지 못하고 경험이 없는 자(者) 여서 배를 제대로 지휘하려면 선장이 지녀야 할 중요한 덕목인 권위를 조금은 상실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리개트가 탈출한 세포라 호의 선장(skipper)과 마찬가지로 화자 겸 선장인 자신도 그의 배를 성공적으로 통제함에 필요한 확신과 용기가 부족하다는 사실 때문에 스스로가 걱정스럽다. 유능한 선장이라는 명성은 차치 하고 서라도 나약한 선장의 전형이 될까봐 두려운 편이다. 이런가운데 리개트의 등장은 선장에게 분명한 행동의 변화를 가져다준다.

리개트 라는 인물은 그의 지시에 불복한다는 이유로 하급선원을 죽인살인자이다. 물론 그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다하더라도 범법자이며 도덕적으로도 용서 받을 수 없는 커다란 험을 지닌 자이다. 이에 반해 선장은 도덕적으로 교화되고 인간적으로는 이렇다 할 흠이 없는 세련된 사람으로 나타난다. 선장은 배가 항로를 따라 정연하게 나아가야 된다고 믿는 곧은 성품이지만, 리개트는 돛폭을 수리하는데 그를 도와주지 않는다며 동료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람이다.

선장이 이성적인 반면에 소심한 사람의 인간성을 드러내고 있다면 리개트란 인물은 비이성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선장에 비하면 아주 용감한 심성의 소유자이다. 두 사람은 다함께 그들 상호간의 인간관계를 통하여 서로를 완벽하게 만들어 나간다. 콘라드는 리개트가 여하히 그의 영향력을 선장에게 행사하고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를 어떻게 완벽한 선장으로 탈바꿈시키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 소설에서 이용되고 있는 생령의 주제가 어떤 한 사람의 인성은 타자와의 관계를 통하여 만들어지며 자신에게 결여되어 있다고 인정하는 자신의 일부를 타자가 엿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장인 '나' 도

dCollection

리개트 에게서, 그리고 리개트 또한, 선장인 '나' 에게서 보다 높은 차원의 인식을 공유하도록 하고 있다 할 것이다.

III

형식상으로 볼 때 1부와 2부로 나뉘어져 있는 이 소설은 비평적 관점에서 몇 가지 논의를 불러 왔다: 프로이드적 비평의 접근과 융의 비평적 접근이 그것이다. 이들은 모두 이 작품의 상징성에 주목하고 있는데 로버트 로저스에 의하면, '선박에서 선장은 무한대적 권한의 소유자이며, 심리적으로는 아버지와 비유될 수 있다' ⑥ (see p.44)는 것이다. 리개트의 동료선원에 대한 범죄행위는 권위에 대한 저항이며, 그를 원죄를 범한 아들로 본다.

선장이 범죄를 저지른 리개트와 연대하게 되는 것은 초임 선장으로서의 부족감 내지는 자신감의 결여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선장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리개트의 경우, 그의 범죄행위는 법에 대한 도전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격심한 공포 속에서도 질서를 유지하려 하고 악조건 하에서 배를 구출하는데 관심을 보여준 인물로 묘사되긴 하지만, 결과는 리개트가 일등항해사로서 그 직위에 합당한 명령권자로서의 역할을 상실하는 반면에 선장은 자신이 불법을 조장해 놓고도, 유능하고 결단력 있는 자임을 입증해 보임으로써 마침내 그의 희생양을 자신의 배에서 몰아내는 데 성공하게 된다고 보고, 이제는 자기역할을 자신 있게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어떤 걱정과 원죄의식을 느끼지 않게 되는 해방감이 이 소설의 해피 엔딩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본다.

그런가하면 앨버트 게라드(Albert Guerard) ⑦ [(p.272.) C. B. Cox Joseph Conrad : The Modern Imagination, London, Toronto. 1974, pp 140-1 재인용 ⑧)]는 Heart of Darkness에서와 마찬가지로, 심적으로 불안하고 인간적으로 소외된 자가 자신보다도 더 소외된 자와 접촉하는 것과 관련지어 설명하고 있다. 속삭이고 재연할 수 없는 대화로 그는 자신의 비밀스러운 자아와 대화를 한다는 것이다. 선장 겸 화자에게 있어서 진정한 의미의 딜레마는 리개트의 내심에 자리 잡고 있는 잠재된 범죄성과 천박하고 고유한 원죄적 자아를 알아내야 하는 문제이다. 그리하여 진정한 인간으로 나아감에 있어 새로운 자아인식을 그에게 주입하는 일이라고 본다.

내면의 무의식이 세상 밖으로 나와 그 의도가 알려지고 마음속에 담고 있는 부정한 내용과 함께 어느 면에서 마음으로부터 해방감을 가지게 될 때, 비로소 개성의 통합이 이루어진다. 꿈에서처럼, 융의 심리학에서 선장의 남루한 모자는 자신의 개성과 상징적으로는 또 다른 하나의 개성으로 전환될 수 있는 물체이다. 이 소설에서 선장이 리개트에게 준 모자는 이제 그가 무의식의 자아를 수용한다는 것을 과시하는 수단이 되는 것으로 본다. 선장이 리개트에게 모자를 건네주는 이러한 행위와 관련하여 이러한 그의 관대함이 배를 구출

dCollection

하게 되는 요인이 되고, 심신의 건강함을 상징하는 것이 되며, 모자가 배의 안전항해를 결정짓는 중요한 표지로 활용되고 있다고 보는 무의식적 의지가 여기에 상징적으로 전환되어 있다는 것이다.

Jocelyn Baines (Joseph Conrad (Pelican, 1971) ⑨ (Ibid ⑧ C. B. Cox p.141 재인용)는 이 소설의 스토리가 상징적으로 다소 과장된 것으로 본다는 해설을 내놓고 있다 ; 의도적으로 이 스토리가 드라마틱하게 전개되었으며 심리적 면이나 도덕적 면에서 다소 경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게라드의 논리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융의 해설방식으로는 이 소설의 마지막 문장 (a free man, a proud swimmer striking out for a new destiny. (193) ⑩ 이하 Text의 인용은 위와 같이 페이지로만 표시한다)을 도저히 해설해 낼 수 없다고 말한다.

리개트는 a free man으로, a proud swimmer로 아주 힘차게 헤엄쳐 나간다. 이를 무의식으로는 도저히 행동화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작품 어디에서도 선장이 리개트를 바라봄에 있어서, 명시적이거나 암암리에 그 어떤 어려움도 느끼지 않으며 또 어떤 형태의 자성의 기미도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즉, 그는 리개트를 대함에 있어서 아무런 도덕적 난관도 없다는 것이다. 리개트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선장이 seaman으로서 실패하고 말 것이라는 그 어떤 증거도 플로트 상에서 찾아볼 수 없다고 말한다.

선장은 그가 정박당직을 대신 해줌으로써 관례를 깨뜨렸음을 자신의 실수로 인정하고 있다. 그는 스스로 진정어린 마음으로 그가 깨뜨린 관례를 두고 자신의 행위가 과연 현명한 것이었는지 자문하고 있다. 이 일은 줄사다리의 바닥에서 리개트를 발견하기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들이다.

Frederick R. Karl ⑪ (see pp. 230-6)은 Baines와 비슷한 견해를 내놓고 있다. 그는 이 소설에서 a cosmic significance를 찾으려 하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공세를 취한다.

> The surface in this case is the story, and the surface is the arrival of the Captain at a degree of maturity in which he gains self-respect and confidence.

즉, 이 스토리를 Karl은 선장이 자기 확신과 신념을 얻기까지의 성숙의 과정으로 보고 있으며, 따라서 비밀동숙자는 원칙적으로 Conrad가 다른 여러 소설에서 다루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단순히 성장의 주제를 다루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선장이 범법을 저지른 바가 없고 범죄자의 탈출을 도와줌으로써 남자다운 모습을 입증해 보여 주었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이 소설은 Conrad가 다루고 있는 주제의 축도로 보고 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덧붙이고 있다.

dCollection

(The story is one of Conrad's best) but for all its suggetiveness, it is, paradoxically, one of his most straightforward and obvious works. Its narrative is a model of clarity. Ibid, Karl ⑫ p.233

Karl, 그에 의하면 심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 작품은, 저급하며 주제인 alter ego의 표현이 지나치다는 것이다.

간추리면, Baines/Karl 모두가 프로이트적 접근방법과 융의 해석방법이 이 스토리가 담고 있는 중요한 세부를 설명해내는데 적합하지 않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그리고 리개트는 그의 여러 가지 특성으로 미루어 볼 때에 무의식의 상징물로 그 역할을 하기에는 부적절한 인물이라는 견해이다.

그는 건전한 정신의 소유자인 동시에 결단력 있는 인물로 바다에 뛰어들어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정박등의 불빛을 향해, 선장이 타고 있는 배를 향해 헤엄쳐 온 것으로 자살에 이를 정도의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다. 프로이트적 분석도 수긍이 가는 대목이긴 하지만, 선장은 리개트를 숨겨주는 과정에서 내심에 작용하고 있는 실질적인 긴장의 요인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는 승무원으로부터 리개트를 들키지 않게 해야 하는 절박한 현실 때문에 긴장한 나머지 그의 심신은 혼동상태에 있다. 그는 지금 자신의 비밀스런 행동이 노출될까봐 두려워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두고 그의 비밀스런 행위를 Oedipal guilt의 상징으로 수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리개트가 발각된다는 것은 곧 그의 죽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선장은 어떡하든 이러한 시련에 맞서서 살인자인 리개트를 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있다.

그가 걱정하고 있는 바에 대한 이성적 해설은 리개트의 범죄행위와 무의식과의 의도된 동일시보다는 훨씬 더 중요하다 하겠다.

그러나 Baines와 Karl모두가 스토리가 나타내고 있는 제반특성을 무시하고 지나치게 간단한 설명으로 작품을 보려는 태도 또한 적절치 않아 보인다.

그런데 게라드는 이 소설에 나타난 배경을 상징적인 잔상으로 설명하는데 성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유령같이 두상이 없는 수영 자, 선장의 모자와 이 모자의 상징적 역할이 그러하고, 깜깜한 코링 Koh-ring해안의 묘사가 그러하다 하겠다.

어느 한 상징적 해설이 부적절하고 화자가 제시하는 표현방법이 숨은 의미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해도, 프로이트적 아이디어와 융 식의 아이디어가 독자의 정신 속에 필연적으로 떠오르기 마련이다. 그리고 소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특정한 여러 사건을 무시하고 '극적인 이야기' 정도로만 이 소설을 보아서도 안 될 것이다.

리개트도 선장도 그들의 모범을 따라 배울 만큼 훌륭한 성격의 소유자는 아니다. 그가

dCollection

살인의 죄를 범하기는 했으나 정직한 콘웨이 출신의 보이가 아니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찾아보기 어렵다. 선장의 행위도 때로는 하도 엉뚱해서 그가 지닌 비밀스런 성향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그 근원을 찾아볼 필요를 느낀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때로 화자가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는 의미해석상의 커다란 어려움에 봉착하곤 한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Baines/Karl도 뚜렷한 설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왜 선장은 Koh-ring의 어두운 해안선을 따라 그의 배를 몰아갔던가? 독자라면 그 누구나 다 리개트에게 안전하게 해안에 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이라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대단한 수영실력자임을 스스로 입증해 보이지 않았던가? 따라서 선장이 그 배를 육지와 맞닿을 정도로 아슬아슬하게 스쳐가며 운행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좀 더 분명한 사실은 도덕적 이유에서건 심리적인 이유에서건 간에 선장이 불필요하게 배와 승무원을 위험에 빠뜨리는 모험을 감행한 사실이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리개트가 물위에 떨어뜨린 모자 덕분이었다. 과연 우리는 이때에 선장이 취한 행동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제 좀 더 세분화 된 설명으로 이 스토리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보자.

IV

도입부에서 익명의 화자는 최근에 닻을 내린 시암(Siam)만의 메남(Meinam)강 어구에 정박하고 있는 자신이 선장으로 명(命) 받은 그 배의 갑판에 서 있다. 사람들이 쓰다 만 고기잡이 방책이 황량한 몰골로 버려져 있을 뿐이고 방금 전에 자신을 내려준 예인선도 이제는 꾸불꾸불한 강줄기를 따라 사라져 가 버리고, 땅이며 바다며 하늘도 한순간 고요 속에 한 덩어리가 되어 버리고 말아, 이제는 단조롭게 펼쳐진 지평선을 헛되이 더듬고 있다. 주어진 임무는 그 얼마나 힘이 들것이며 기나긴 모험에서 어떻게 잘 적응해 나갈 수 있을지, 홀로 생각에 잠긴다. 화자는 자기가 선장으로서 자신감이 결여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자신의 주관적 의식을 통해서 자신을 개척하고 자기를 찾아 나서야 한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그에게서 지금 요구되는 것은 자신감의 회복이다.

한 무리의 별이 하늘에 떠오르고 저녁식사를 알리는 종소리를 들었을 때 화자는 항해사들이 저녁 식사를 위해 신임 선장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 배에서 승무원들은 18개월을 함께 지낸 사이다. 그러고 보면 자신은 이 배에서 이방인에 불과 한 데다 2등 항해사를 제외하면 가장 나이가 어린 편이다. 이제 그들 모두의 관심은 과연 선장이 어떤 성향의 사람인가 궁금해 하고 있다.

그는 자신에게 모자라는 것이 자신감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배에서 최소한 냉소를 자아내게 하는 존재는 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는 자신을

dCollection

이렇게 드러내 놓는다:

> It must be said, too, that I knew very little of my officers. In con- sequence of certain events of no particular significance, except to myself, I had been appointed to the command only a fortnight before ... What I felt most was my being a stranger to the Ship; and if all the truth must be told, I was somewhat of a stranger to myself. (137-8)

여기서 드러난 중요한 사실로는 첫째, 자신은 항해사들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것이 없다. 둘째, 나는 어떤 자격의 검정이나 경쟁을 통해서 선장이 된 사람도 아니고, 게다가 불과 2주전에 이 배의 선장으로 임명되었다. 셋째, 내가 가장 마음속에 두고 있는 것은 이 배에서 자신이 낯선 사람이라는 것과, 꼭 진실을 털어 내 놓아야 한다면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도 이방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점이다.

그가 느닷없이 정박당직을 서겠다는 결정을 내린 후에 그는 별빛 아래에서 내적 성찰에 들어간다. 그는 맡은바 직책에 낯설다. 선장에게 요구되는 직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능력을 채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책에 어울리지 않는 임무를 맡는 것이 비아냥거림의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이를 통해서 배에 관하여 더 많이 배우고 "지휘 한다"는 "창조적 책임감"을 키우고 있다. 그는 관해(觀海)를 즐긴다. 그는 육지생활의 불안보다는 바다의 안전을 더 즐긴다. 마음을 산란하게 하는 문제가 전혀 없고 해상생활에서는 육상생활에서 찾아볼 수 없는 기본적인 모럴의 아름다움이 있는데 그것을 즐겨 한다는 것이다.

자아회의에 빠져있는 선장과 퍽 대조되는 리개트라는 인물이 소설에 들어선다. 그는 "머리 없는 시체"라는 유령 같은 형상으로 배에 실린 밧줄사다리 밑에서 직위에 어울리지 않는 선장의 정박 당직 시간에 등장, 선장에 의해 최초로 발견된다. 그는 어떤 의미에서 초자연적 능력을 지닌 정력의 권화(權化)처럼 보인다. 그는 스스로 자신감을 회복하고 부하들로부터 존경심을 얻으려하는r선장을 도와주기 위해 창조된 매우 활동적이고 정력적이며 침착성을 겸비한 인물로 나타난다. 선장과 리개트가 처음으로 만나서 나누었던 대화에 주목하자.

> "What's the matter?" ... "Cramp." ... "I say, no need to call anyone." "I was not going to, " I said. "Are you alone on deck?" "Yes." ... "I suppose your captain's turned in?" "I'm sure he isn't, I said.... "What's the good?" ... "Look here, my man. Could you call him out quietly?" ... "I am the captain." I heard a "By Jove!"

dCollection

... "My name's Leggatt." ... "You must be a good swimmer." "Yes. I've been in the water practically since nine o'clock. The question for you now is whether I am to let go this ladder and go on swimming till I sink from exhaustion, or-to come on board here." (143-4)

리개트가 바다에서 맨몸으로 나타난 것은 그가 선장을 위해 창조된 인물임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다. 그들의 상호관계가 조금 후에는 보다 명확하게 노출되겠지만, 우선 위의 대화만 보더라도 화자와 리개트 간에 서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리개트의 화자에 대한 언사는 명확한 확인과정을 거치고 있다.

갑판 위에는 당신 혼자 있는 거요?/ 선장은 선실로 들어갔겠지?/ 이 보시요, 친구. 선장을 조용히 불러 줄 수 있겠소?/ 내가 선장이야. /그럴 리가. 등등의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리개트는 선장을 보통선원쯤으로 생각한다. 그 시간에 선장이 정박당직을 설 리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안다는 말이다. 선장도 그렇다. 그는 처음에 자신의 직위를 확실히 말하지 않고 있다 그가 선장이라 지만 선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내실의 실체, 즉 불굴의 정신하며 당당한 태도, 강직함을 암시하는 자질이 부족함을 내비치고 있다; 자신이 선장이면서 '선장은 지금 선장실에 들어가지 않았다' 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선장과 리개트의 만남에서 이들 두 사람 모두가 다 서로들 국외자라는 공통인식이 있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런데 외향성과 내향성 , 이상과 현실로 대조를 이루고 있는 성향간의 대면은, 특히 선장에게 있어서는 이 양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긴장 때문에 거의 혼돈상태에 빠진다. 그리고 자신의 고유한 상상력조차도 자제력을 잃게 되어 비현실적 사고를 하게 된다. 그런가 하면 리개트의 용맹함과 생존을 위한 원초적이고도 야심(野心)찬 결의가 이 배에서 드세게 표출되는 계기가 된다. 그것은 리개트의 승선 이후, 그리고 선장실에 그를 은거토록 한 이후부터 선장의 활동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데서 찾아 볼 수 있다. 동승한 선원들로부터 도주자를 숨기는데 자기 나름의 이치에 맞는 변명이 요구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 후 그의 반응은 점점 신경증의 증세를 드러내 보인다.

그를 숨겨준 첫날 아침부터 식욕을 잃고 있으며 지금 벌이고 있는 자신의 가식적인 행위가 얼마나 힘 드는지 이런 고백을 한다.

"At breakfast time, eating nothing myself, I presided with such frigid dignity that the two mates were only too glad to escape from the cabin as soon as decency permitted; and all the time the dual working of my mind distracted me almost to the point of insanity. I was constantly watching myself, my secret self, as

dCollection

dependent on my actions as my own personality, sleeping in that bed, behind that door which faced me as I sat at the head of the table. It was very much like being mad, only it was worse because one was aware of it." (160)

자신의 직책 수행능력 마저도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그가 한꺼번에 두 군데에 신경을 쓰자니 정신의 혼돈이 오는 것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see 173) 선장은 지금 자신의 분신으로 받아드린 그를 보호해야겠다는 일념에서 비롯된 마음고생으로 거의 자제력을 잃은 상태이다. 그의 행동은 출발한지 겨우 한 시간인데 곁에 서 있는 항해사 더러 멀리 보이는 탑(Pagoda)의 위치를 측정하도록 속삭이는 몸짓으로 명령을 내리는가 하면 조타수가 그를 유심히 보고 있는 가운데 이상한 자세의 걸음걸이로 나침반을 보려고 난간을 떠나고 있다. 그는 이런 일로 인하여 스스로도 놀라고 있으며 우유부단한 선장(an irresolute commander(see 173-4))으로 인식될까 두려운 나머지 지나치게 한 쪽으로 편향된 자기의식을 가다듬으려고 애쓰고 있다.

선장은 지금의 자신이 이렇게 어지러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반하여 리개트의 도전적 의지를 크게 평가하고 있다. 그는 자신이 최근에 들어서 알게 된 것이라며 이런 말을 한다; 7주간이나 선실에 감금되어 있었던 리개트에서 병색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리고는 "He was not a bit like me. really."(151)라고 말함으로써 자신과 비교되는 리개트의 범상치 일면을 소개한다. 이는 자신의 병약한 의지와는 다르게 리개트의 모범을 수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리개트와 관련하여 콘라드는 Cutty Sark 호에서 일어난 실제의 살인사건을 축소 순화함으로써 세포라 호에서의 리개트의 행위를 사관의 전형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리개트 로부터 사건의 전말을 듣고 있던 선장은 이미 자신의 분신이 된 그의 설명을 전적으로 수용하면서 화자의 해설에 대해서도 동의하는 태도를 취한다.

"I quite understand",... It was all very simple. The same stung-up force which had given twenty-four men a chance, at least, for their lives, had, in sort of recoil, crushed an unworthy mutinous existence.(172)

리개트의 행위가 적절했다면 세포라호의 선장인 아츠볼드(Archbold)는 실패한 인물의 전형일 수밖에 없다. 그의 말대로 그는 자신의 불명예를 만회하기 위하여 고심한다.

I've had the Sephora for these fifteen years. I am a well-

dCollection

known shipmaster."...

나는 15년째 세포라호에서 일해오고 있소. 게다가 널리 알려진 선장이지.

"I have been at sea now, man and boy, for seven-and-thirty years, and I've never heard of such a thing happening in an English ship. And that it should be my ship. Wife on board, too."(163-4)

나는 어린시절부터 37년이 지난 지금까지 줄곧 바다에서 생활해왔다. 그런데 영국 배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런 끔찍한 사건이 내 배에서 터질 줄이야. 더구나 아내가 타고 있는 배에서 말이요!

선장인 화자는 아츠볼드에 대해 일말의 동정심을 느끼기는 하지만 이 배에서 비밀을 털어놓고 지내는 내 인생의 비밀 동숙자(the secret sharer of my life(161))를 그에게 내 줄 수는 없다. 게다가 그는 리개트의 범죄 행위가 비정상적인 정신발작에서 저질러진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행사된 특수한 상황을 양해하고, 그에게 이미 면죄부를 준 상태인 것이다. 그런데 이런 그도 이제 자기 분신에 대한 지나친 관심이 정말 미친 짓이라는 말로 국면전환의 꾀하려 하고 있다. 그사이에 등장한 화자와 아츠볼트와의 접촉에서 우리는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뜻밖의 방문객에게 선장은 무슨 일로 오셨는지 좋은 일이라도? ("What was that for-fun?") 하고 묻고 있다. 고약한 일이("Painful duty")라는 것이 그의 대답이다. 그들은 2마일이 나 보트를 저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다. 그들은 리개트가 이 배에 숨어 있다고 굳게 믿고 있다. 그런데 그는 아치볼드 선장이 자신에게서 그가 찾고 있는 리개트와 닮은 데가 있어 그를 연상케 하는 그 무엇을 발견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see, p.167)그는 잠시 동안 리개트를 숨겨놓은 것에 대한 죄의식에 사로잡힌다. 그러나 그는 아츠볼트 로부터 자신은 "절대로 리개트를 좋아 한 적이 없다"는 것과 돛폭의 수리를 자신이 명했다는 소리를 듣는다. 그는 리개트를 자살로 처리할 생각임을 내 비치기도 한다. 자신의 관할 하에서 일어난 수치스러운 일임에도 아츠볼드의 이러한 언급은 자신의 통솔력을 의심하게 하는 것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도 저도 부족한 면이 은연중에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츠볼드가 보여준 무능한 행위는 양심에 비추어 부끄러운 일이었다. 이제 화자 겸 선장은 리개트와의 만남을 계기로 내면적으로 결속되고 외면적으로는 자신감에 찬 행동을 펼쳐 보이는 또 하나의 분신이 됨으로써 아츠볼드와는 전혀 다르게 새로운 결단력을 과시한다. 선장은 위기의 순간을 비켜가며 내심으로는 아무런 동요를 보이지 않을 만큼 리개트로부터 두려움에 대처하는 의연함을 교훈으로 얻었다. 이제 그가 자신의 범용함을 행동으로 나타내 보일 때가 왔다. 이러한 선장의 결의에 찬 각오는 이 소설의 크라이막스에서 잘 표출되고 있다.

dCollection

V

이 소설의 크라이막스를 이루는 내용은 '비밀동숙자들의 작별에서 비롯된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자기성숙과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리개트로에게서 돌연, 나를 버려달라는 요구를 받는 선장은"Impossible" (180)이라며 당시에는 그의 청을 수용하지 않으나, 결국 그의 요구를 받아들인다. 리개트는 자신이 밤에 살그머니 이 배로 헤엄쳐 찾아 왔듯이 이제는 말없이 사라지려 한다고 했다. 선장은 이제 리개트를 만나기 이전의 그가 아니었다. 그는 지금 두려움 따위는 버린 사람이다.

> "배를 바람 부는 방향으로 타병을 돌려라"/"Hard alee"...
> "중간 돛 방향전환!"/ "Mainsail, haul!" (179)

리개트는 이 잠옷만은 끝까지 걸치고(I shall freeze on to this sleeping suit)라고 대꾸하며 선장에게 자신의 청을 꺾지 않았던 것이다. "내일까지는 안돼. 지금 배는 근해를 항해하고 있으며 바람도 아직 신통치 않아." ("It can't be done now till next night. The ship is on the off-shore tack and the wind may fail us.")라고 말하는 것으로 그의 청을 완곡히 수용했던 것이다.

사실 선장의 고민은 그를 위해서 무모할 정도의 항로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데 있었다. 그는 무역항로 상으로나 지리상으로 밝혀지지 않은 곳은 피해야 한다. 최소한 타지로 갈 수 있는, 접근성이 좋은 유인도(有人島)를 택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는 육연풍(land breezes)이 불어오는 해안으로 접근하여, 날이 어두워지면 비밀동숙자와 코링 섬의 해안으로 갈 계획을 하고 있다. 불안에 떠는 조타수에게 선장은 조용한 음성으로 돛에 바람을 채우고 진로를 수정하지 말라("Keep her good full. Keep her full. Don't check her way"(188-9))라고 명한다.

선장은 지금 오직 자기의 분신인 리개트를 위한다는 일념으로 코링 섬의 칠흑 같은 밤바다를 향하도록 항해사 더러 부당한 명령을 내리고는 이를 따르도록 강제함으로써 선량한 다수의 선원을 극도의 불안으로 내 몰고 있다. 그들은 서로 악수하는 사이가 아닌가!

배는 이제 'Erebus의 입구"(the very gateway of Erebus(193))에 들어섰다. 여기서 우리는 승무원들의 날카로운 외침소리를 듣는다. "아이구! 여기가 어디지? 멸망이야!" ("My God! Where are we? Lost!"(189)) 이에 대한 선장의 반응은 "조용히 해" ("Be quiet.") 하고 단호히 대꾸하는 것이 전부였다. 조용한 바다와 마스터 꼭대기에 내려 덮일 것 같은 코링 섬의 암벽이 가까워 오자 선장은 "키자루를 아래쪽으로!" ("Hard alee!"(190)) 라고 명한다. 그의 명령이 메아리쳐 되돌아오는 사이에 잔잔한 바다, 까만 물, 암흑 속에서 무엇인가 하얀 물체가 보이는 것이 있다 : 모자이다. 선장은 태양의 직사

dCollection

광선으로부터 그의 머리를 보호하라고 준 것이지만, 그는 리개트가 자신의 무모함을 깨우쳐 주고 무사히 이렇듯 위험한 수역을 벗어날 수 있는 표적이 되도록 해 준 소중한 존재로 받아들인다.

"침로를 바람방향으로"/ "Let go and haul" (192)

이제 모든 선원은 환호하면서 명령을 기다리는 자세로 돌아섰다. 그리고 그는 배에서 절대적인 권위인 선장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나의 비밀동숙자가 남긴 그 모자(floppy hat)를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운명을 향해 그가 힘차게 헤엄쳐 나갔으리라는 상상을 하는 것이다.

마지막 라인은 그가 자유로운 인간으로서 새로운 운명을 향해 힘차게 헤엄쳐 나갔다. 라고 했다. "a free man, a proud swimmer striking out for a new destiny" (193) '자유인' 이라는 면죄부성의 호칭을 주면서 까지 말이다. 콘라드가 말하는 '새로운 운명' 이라는 말이 함의하는 상징적 의미는 무엇일까? 이는 선장이 리개트가 그러리라고 바라는 희망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인 용 문 헌

① Nigger of The Narcissus. 1952. Doubleday & Company. Inc. New York, 1914.
② Edward Garnett(ed). Letters From Joseph Conrad, 1928
③ Norman Sherry. Conrad and New World, London, 1972
④ Ibid, 2, 1928
⑤ Heart of Darkness and The Secret Sharer, 2002
⑥ Robert Rogers, The Double in Literature, Wayne State. U.P.Detroit, 1970
⑦ Albert Guerad, Conrad the Novelist. p. 272
⑧ C. B. Cox. Joseph Conrad: The Modern Imagination. London, 1974
⑨ Jocelyne Baines. Joseph Conrad, 1971
⑩ Heart of Darkness and The Secret Sharer by J. Conrad,
Introduction by Franklin Walker. Bantam Books, 2002
⑪ Frederick Karl. A Reader's Guide to Joseph Conrad. Thames & Hudson, 1960
⑫ Ibid, 11 (pp. 230-6)

dCollection

Collection